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2일(일) 오후

■ <문제 1>

64세 비흡연자인 여성 A씨는 폐암 말기로 진단되었다. A씨의 딸은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진단명은 알리더라도 이미 말기 암 상태로 치료가 어렵고 남은 수명이 1년 미만일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은 환자에게 밝히지 않기를 원한다. 환자와 면담을 앞둔 “나”는 ‘의사로서 의학적 사실을 정직하게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환자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얼버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진단명만 알아도 좌절할텐데 희망이 없는 의학적 예후를 말하는 것이 옳은가? 딸의 의견을 받아들여 희망을 주자’는 생각도 든다.

당신이 “나”라면 두 가지 생각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 추가질문

1)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 추가질문

환자에게 희망적 요소 없이 사실만 전달한다면 환자의 정서적 충격을 무시하고 신체 질환만 진료하는 냉정한 의사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2)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 추가질문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환자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지 않을까?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2일(일) 오후

■ 예시 모범답안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

- 의료계에서 사실만을 말한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소통 가치이다.
- 환자의 알권리는 중요한 권리이다.
- 환자를 독립된 한 인간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 환자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환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들을 계획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다.
- 의사는 주관적 감정보다는 이성과 정확한 판단으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
- 의사는 감정에 이끌려 보호자의 요구에 따르다가 그와 의견이 다른 환자나 다른 보호자들에 의해 소송에 걸리거나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

- 정신적으로 취약하거나 정서적으로 견디는 힘이 약한 환자들에게 치료할 수 없는 암 진단은 충격과 공포,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여 희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부정적 요소를 굳이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희망을 갖게 된다면 실제 신체 질환의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사-환자의 관계에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유연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 통증을 줄이는 등의 치료를 받는 것도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중요한데 사실만을 전달한다면 환자는 절망에 빠져 치료 협조가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희망을 제공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2일(일) 오후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1)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 추가질문

환자에게 희망적 요소 없이 사실만 전달한다면 환자의 정서적 충격을 무시하고 신체 질환만 진료하는 냉정한 의사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시 모범답안]

- 의사는 진료 및 검사, 예후에 대해 근거가 뒷받침되는 의학적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
- 환자에게 정서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의학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돕는 것 또한 의사의 역할이다. 그래야 환자도 남은 치료를 협조적으로 받고 가족들과 교류하고 인생을 정리하며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다.
- 보호자도 고통을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지지적으로 환자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 의사가 진정성 있고 공감하는 태도로 의학적 사실을 전달한다면 환자 및 보호자도 냉정한 인상은 받지 않을 것이다.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2일(일) 오후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2)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 추가질문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환자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지 않을까?

[예시 모범답안]

- 환자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치료에 큰 영향이 없는 부정적 내용은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환자가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오히려 삶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 보다 더 해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 지속적으로 희망을 제공하며 비교적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도 말기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역할이라고 본다.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2일(일) 오후

■ 채점기준

-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

[탁월] 아래의 [매우 우수]에 나온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탁월한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환자에게 정서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의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다.
- 환자도 알아야 인생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교류하며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다.
- 의사가 진정성 있고 공감하는 태도로 의학적 사실을 전달한다면 환자와 보호자도 냉정한 인상은 받지 않을 것이다.

[매우 우수] 아래 예시 답변에서 제시된 내용, 또는, 예시 답변에 없더라도 부합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한 경우.

- 의사는 환자에게 의학적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해야 한다.
- 환자의 알권리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 권리를 무시했을 때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다.
- 의사는 주관적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으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
- 환자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환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들을 계획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우수] 위의 [매우 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거나 편견에 해당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미흡]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2일(일) 오후

■ 채점기준

-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

[탁월] 아래의 [매우 우수]에 나온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탁월한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환자가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삶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 희망을 제공하며 비교적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도 말기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역할이다.

[매우 우수] 아래 예시 답변에서 제시된 내용, 또는, 예시 답변에 없더라도 부합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한 경우.

- 정신적으로 취약하거나 정서적으로 견디는 힘이 약한 환자들에게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소식은 충격과 공포,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치료에 큰 영향이 없는 부정적 내용은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것이 낫다.
- 의사가 구체적 상황에 따른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부정적 요소를 말하지 않아서 환자가 희망을 갖게 된다면 실제 신체 질환의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통증을 줄이는 등의 남은 치료도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중요하므로 환자가 절망에 빠져 치료에 협조가 안 되는 경우를 막는다.

[우수] 위의 [매우 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거나 편견에 해당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미흡]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2일(일) 오후

■ <문제 2>

의대 교수 B는 의과대학생들의 우울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우울증은 여성에서 더 많고 우울 기분, 흥미저하를 포함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의과대학생들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우울증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료 1>은 우리나라 의과대학생들의 우울증 유병률을 높이는 가능한 위험요인들을 나타낸 것이다. B는 이 위험요인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보고서를 써야한다. 개인의 생물학적 요소와 같은 학생 개인의 특수한 내적 요인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교육과정, 학업환경 등 환경적 요인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자료 1>

-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 혼자서 하숙 또는 자취를 하는 경우
- 입학시험 없이 특례 입학한 학생들
- 전년도 평균평점이 낮은 경우(2.0이하/4.3만점)
- 6년제 의과대학에서 의예과 2년을 마친 의학과 1학년
- 지난 1년 간 우울증 유병률은 여학생 8.3%, 남학생 6.5%

당신이 B라면, 어떤 요인을 우선으로 선택할지 <자료 1>을 근거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 추가질문(공통)

당신이 의과대학 학장이라면, 학교에서 시행 가능한 학생들의 우울증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제시하시오.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2일(일) 오후

■ 예시 모범답안

1) 개인의 특수한 내적 요인을 우선으로 선택한 경우

- 우울증 유병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아 성별의 차이가 중요한 위험요인을 시사한다.
- 특정 사유로 입학시험 없이 특례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입학시험을 치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인지적, 적응적 능력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그 개인의 능력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 전년도 평균평점이 낮은 경우는 의과대학의 경쟁적 구도에서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인지적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차이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2) 환경적 요인을 우선으로 선택한 경우

- 의학과 1학년 때 갑자기 늘어난 과도한 학습량, 유급이 있는 시험에의 부담, 경쟁의 심화, 심리적 불안, 체력적 한계, 수면 부족, 여가활동의 부족 등을 경험하며 스트레스 요인들이 증가하면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는 학생 개인의 소인이 아닌 지지환경의 결핍을 뜻하고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환경요인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우울증 발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혼자서 하숙 또는 자취하는 경우는 정서적 지지, 공동체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심리적 고통을 나눌 가족이 가까이 없다는 것으로 우울증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 생각된다.

3) 추가질문(공통) 모범답안

-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세미나, 우울증 예방 교육 실시
- 교수와 학생 간 멘토-멘티 제도를 시행하여 지지와 격려 제공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실 운영 또는 정기적인 면담 시행
-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권유
-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마련
- 의과대학 기숙사 건축 추진 등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2일(일) 오후

■ 채점기준

- 개인의 특수한 내적 요인을 우선으로 선택한 경우

[탁월] 아래의 [매우 우수]에 나온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탁월한 경우.

[매우 우수] 예시 답변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한 경우.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것은 성별의 차이가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시사한다.
- 특례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입학시험을 치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인지적 능력 및 적응 능력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그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위험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전년도 평균평점이 낮은 경우는 의과대학의 경쟁적 구도에서 적응이 어려워 저조한 학업 성적을 보인 것일 수 있고 인지적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개인 내적 위험 요인이다.

[우수] 위의 [매우 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거나 편견에 해당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미흡]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교수용)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2일(일) 오후

■ 채점기준

- 환경적 요인을 우선으로 선택한 경우

[탁월] 아래의 [매우 우수]에 나온 내용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탁월한 경우.

[매우 우수] 예시 답변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한 경우.

- 의학과 1학년 교육과정은 의예과에 비해 갑자기 늘어난 학습량과 유급이 있는 시험에의 부담으로 심리적 불안, 수면 부족, 경쟁 심화 등을 겪는 것이 환경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는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 상대적 박탈감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우울증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 혼자서 하숙 또는 자취를 하는 경우는 정서적 지지, 공동체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심리적 고통을 나눌 가족이 가까이 없다는 것으로 우울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우수] 위의 [매우 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거나 편견에 해당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미흡]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